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시늉만 냈다

19대 국회 개원 1년

제19대 국회가 오는 30일로 출범 1년을 맞는다.

하지만 한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연 19대 국회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일단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 대표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 법' 덕분이다.

그러나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도 컸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지만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세비·삭감·경직 금지·소환제 등 유야무야

폭력 사라졌지만 정치력 부재 '식물 국회'

거의 한 달 만인 지난 3월 22일에서

도 했다.

19대 국회 개원도 늦어졌다. 임기 개시와 동시에 개원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

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로 33일 만

에 '지각 개원'을 했다.

비록 여당의 안건 강행에 따른 여

야 간의 몸싸움이라는 과거의 공식

에서는 탈피했지만 국회 선진화 법

에 걸 맞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

면서 '식물 국회'라는 눈총에 시달

렸다.

여야의 기득권 내려놓기도 흐지

부지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

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각종 정치쇄신 과제를 앞 달려 제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직 의원의 연금 폐지, 경직 금지, 국회의원 소환제, 세비·삭감 등과 같은 방안이 제시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19대 국회 1년 동안 과거 번번이 등장했던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며 "하지만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국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공직자는 1억 753만원을 신고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3억 3487만원, 이정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이 4억 454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내에서도 가장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박 대통령의 재산은 취임 이후 1억 2000만원 늘어난 25억 6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청와대 대통령 비서·경호실 차관급 이상 재산 평균액은 국무위원들의 재산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박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삼성동 자택과 SUV 자동차 그리고 예금이 있었다. 증가 내역을 보면 삼성동 자택의 가액이 21억 7000만원에서 23억 원으로 1억 3000만원이 늘었다. 또 예금도 2억 1252만원에서 2억 3867만원으로 2615만원이 증가했다.

조윤선 장관 47억 최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 수석과 대통령 경호실장 등 청와대 차관급 이상 27명의 인당 평균재산이 18억 64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46억 9739만원을 신고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이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41억 7665만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38억 465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공직자는 1억 753만원을 신고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3억 3487만원, 이정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이 4억 454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수석은 청와대 내에서도 가장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박 대통령의 재산은 취임 이후 1억 2000만원 늘어난 25억 6000만원을 기록했으며, 청와대 대통령 비서·경호실 차관급 이상 재산 평균액은 국무위원들의 재산 평균보다 소폭 높았다.

박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삼성동 자택과 SUV 자동차 그리고 예금이 있었다. 증가 내역을 보면 삼성동 자택의 가액이 21억 7000만원에서 23억 원으로 1억 3000만원이 늘었다. 또 예금도 2억 1252만원에서 2억 3867만원으로 2615만원이 증가했다.

◇청와대 비서진=허태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재산등록 현황

차관급 이상	재산순위	재산총액
최순홍 ①	32억 원	
미래전략수석비서관		
곽상도 ②	29억 4천	
민정수석비서관		
허태열 ③	26억 6천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④	25억 6천	
대통령		
최성재 ⑤	22억 1천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박종렬 ⑥	14억 5천	
경호실장		
주철기 ⑦	9억 8천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⑧	7억 4천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정현 ⑨	4억 5천	
정무수석비서관		
류길재 ⑩	1억 8천	
통일부장관		

자료/인천행정부

국무총리·국무위원 재산등록 현황	재산순위	재산총액
조윤선 ①	47억 원	
여성가족부장관		
황교안 ②	21억 6천	
법무부부장관		
윤성규 ③	19억 2천	
환경부장관		
정홍원 ④	18억 8천	
국무총리		
유진룡 ⑤	15억 1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승환 ⑥	12억 8천	
국토교통부장관		
윤병세 ⑦	9억 4천	
외교부장관		
서남수 ⑧	5억 9천	
교육부장관		
방병남 ⑨	3억 3천	
고용노동부장관		
류길재 ⑩	1억 8천	
통일부장관		

자료/인천행정부

연합뉴스

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과 모철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이미 올해 3월 재산을 공개했으며 공식 임명이 늦어졌던 김강수 국가안보실장은 내달 초 재산내역을 공개한다.

◇국무위원=정홍원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6명의 재산 평균액은 18억 4534만원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 정총리의 재산은 18억 7739만원이었다. 임명이 늦어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7월 재산을 신고해 그 뒤를 이었다. 하태열 비서실장은 26억 6천 102만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판 신속하게 해달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2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순례상 소송의 첫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소송 접수 후 7개월 만에 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준비부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시 올 첫 추경 4879억 원 편성

광주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4879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일반회계 4098억 원, 특별회계 781억 원을 추가한 제1회 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3조 1899억 원, 특별회계 7293억 원 등 총 3조 192억 원이 됐다.

주요 추경 예산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19억 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38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2차보전 5억 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2차보전 4억 원 ▲시화문화마을

조성 5억 원 ▲푸른길·장덕도서관 건립 지원 12억 원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및 국제 학술대회 5억 원 ▲야구경기장 건립 8억 원 등이다.

또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 5억 원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15억 원 ▲광역생태망설 관리 4억 원 ▲마을하수도정비 18억 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372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38억 원 ▲정신보건시설사업 33억 원 ▲아동길 조성을 통한 인권창조도시 관광 활성화 12억 원 ▲자치구 재정보전 114억 원 ▲시청 문화광장 내 아우스케이트장 설치 3억 원 ▲4%

이상 고금리 지방채 차환 2488억 원 등이다.

광주시 송재식 예산 담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증액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 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일자리, 취약 계층 지원 등 시민 행복과 직결되는 사업에 추경을 집중 편성했다"면서 "특히 장기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 현 4.0% 이상인 고금리 정부자금채를 민간자금으로 발행·차환해 만기까지 116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코레일 지주회사 전환, 부분적 시장개방 허용

철도산업 개편방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독일식 지주회사형' 철도산업 개편방안이 나왔다.

'독일식 지주회사형'은 호남고속철

등의 선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다수의 민간

철도 사업자와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

이다. 이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민영화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

간검토위원회가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을 대한 검토의견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암동 전원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m²(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 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 가능)

현 토목공사 80% 진행 중

단지설명 자연 속 힐링 주거 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 관리 연결공사 원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원료(각종 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로 도 접

찾아오는 길

선운자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 속 친환경 명품 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2013학년도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 직장인을 위한 아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향상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촉진

■ 세계화, 정보화 시대